신년사

보험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장치

李 大 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984년이 가고 1985년의 새해가 왔읍니다.

흘러간 1984년을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보험과 방재 측면에서 되돌아 보면, 물가안정이라는 국가 경제의 경사 속에서 우리 보험과 방재기능도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 왔읍니다.

1984년 1월 부터는 보험료의 추가 부담없이 담보범위가 풍수재 및 항공기 낙하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하겠금 보험금의 지급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금년 여름에 뜻하지 않았던 홍수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7대도시에서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공장, 아파트, 학교, 시장, 공연장, 기타 특수건물의 소유주들은 수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당 화재보험협회가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으로 모두 깨끗이 복구할 수 있어, 불행중 다행으로 재난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읍니다. 보험은 이렇듯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하는 생활안정의 안정장치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멕시코의 대형 가스 폭발사고와 인도의 보팔시 에서의 대형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약2500명의 사망자와 약3만명의 부상자를 내는 불상사가 일어났읍니다.

이러한 사고는 위험관리, 즉 안전관리를 잘 못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란, 사계의 연구 권위자들과 기술자들로 위험관리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규합 조직화 및 이들이 연구 발전 및 시설 위험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과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문명의 이기가 나오고 있어, 이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재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선진제국들은 방재기능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읍니다.

당 한국화재보험협회도 선진방재국이 되기 위해 현재 방재시험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방재시험소가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젯점이 있는 것은, 지난 해에 공정거래제도를 손보업계에 적용하는 정책 변화가 있어, 금융풀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위험관리 전문기관인 당 협회의 방재시험소 운영에 투입할 예산의 큰 원천이 막혀버림으로써 막중한 타격을 받아 그 대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미결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당 협회 임직원 전원은 이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 합심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의 7대도시의 4층 이상의 건물, 학교, 공연장, 시장, 공장, 옥내 판매장, 방산업체건물, 기타 특수건물에 대한 위험관리와 방재시험소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소홀함이 없겠금 할 결의를 가지고 있아오며, 화재보험 서비스에도 더욱 더 힘쓰겠사오니 여러 손보업계 인사들과 7대도시의 해당 건물소유주 여러분께서는 새해에는 배전의 협조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 및 정신적인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5년 원단 李大鎔